

북스

Books

화폭 가득한 조선 선비의 기상과 의지

사군자
이선옥 지음



“줄기 하나를 치더라도 용을 움켜잡고 밤을 잡아매듯이 하며, 꽃송이를 그려 넣더라도 구천(九天)에서 현녀(玄女)가 노닐 듯 해야 하며, 한 줌의 버섯물을 곧 푸른 바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 매화도의 새로운 장을 연 조희룡의 말이다. 단순한 그림을 넘어 그 안에 선비의 기상과 의지를 담아내려는 포부가 담겨있다.

전남대 독어독문학과를 나온 뒤 문인들의 서화를 연구하고 있는 이선옥씨의 ‘사군자-매란국죽으로 피어난 선비의 마음’은 사군자를 통해 들여다 본 선비들의 이야기다.

한국화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매화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사군자화처럼 문인들의 마음을 담은 서화 활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다.

매란국죽(梅蘭菊竹), 매화·난초·국화·대나무는 한때 국내 신문들의 신년 회화로 즐겨 사용됐고, 여전히 수묵화의 소재로 사랑받고 있다. 사군자 그림의 상징성과 조형미가 새해를 맞는 기쁨과 다짐을 함께 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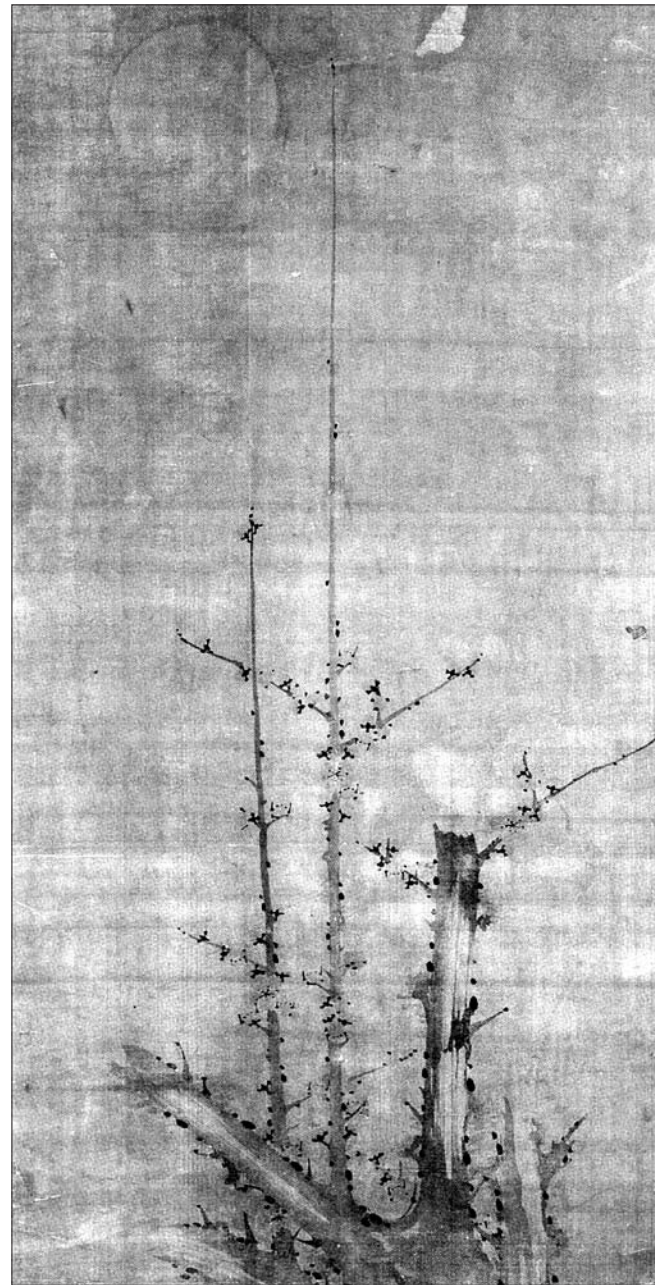
책에는 사군자가 문인들의 사랑을 받게 된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흐름을 이야기 한다. 또 수백 년에 걸쳐 그려진 한국의 사군자와 250여 점의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감상한다. 시대별, 화가에 따라 다른 의미와 모습으로 그려진 사군자를 통해 그림의 작가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마음을 읽어낸다.

현재 5만원권 지폐 뒷면에 실려 있는 ‘월매도’는 조선시대 최고의 매화 화가로 불린 어몽룡의 작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이 그림은 굵고 곧은 매화 줄기가 오랜 풍상을 겪은 듯 모두 끊어 부러져 있고, 가지는 기운차게 뻗어 올라 잔가지에 등성등성 매화꽃과 봉오리를 달고 있다. 또 추사 김정희의 난초 그림 ‘불이선란(不二蘭)’은 선(禪) 경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추사로부터 난 그림을 배운 흥선 대원군은 자신의 정치적 역정에 따라 심상을 반영하는 필법을 구사하며 개성적인 작품 세계를 가졌다.

조선 말기 명성왕후의 친정 조카로서 민씨 세도정치의 중추세력이었던 민영익의 대표작 ‘노근묵란(露根墨蘭)’에는 시대에 대한 울분이 담겨있다.

저자는 “사람 사는 세상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랐으랴 싶지만, 모든 가치가 물질로 가능 되는 현대 사회일수록 사군자화가 지닌 상징은 밤하늘의 새벽처럼 더욱 또렷해진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그림을 곁들여 사군자의 진수를 엿볼 수 있게 했다.

〈돌베개·2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재 5만원권 지폐에 실려있는 어몽룡의 ‘월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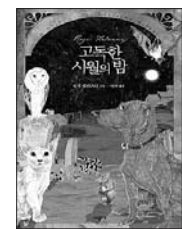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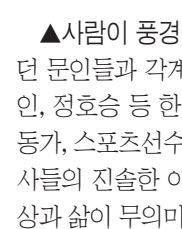
▲황제의 칼데라=재독 작가 강유일(57)씨의 장편소설. 조선 왕조가 멸망해가던 당시 고종 황제와 옥새 장인이었던 우송린이 경복궁 화재 후 새로 제작한 옥새에 담긴 비밀을 그린다. 20세기 말, 뒤늦게 다시 발견된 옥새와 함께 우송린과 그의 아들, 손자의 지난한 역사가 다시 조명된다. 현재 독일 중부 도시 라비린토스 지방법원 부장 판사인 손자 난세는 1961년 아버지 현화와 함께 서울을 떠나 독일에 망명한 인물이다. 〈문학동네·1만2000원〉



▲화폐 인문학-고테에서 데리다까지=일본 현대 철학자 이마무라 히토시가 화폐를 경제학적·사회학적 의미가 아니라 인문학적·철학적 관점에서 논했다. 고테, 앙드레 지드의 소설 분석을 통해 인간 관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화폐 형식이 그들의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형식을 둘러싸고 작품 진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등 화폐에 대한 접근과 해석방식을 기존의 경제적 관점과 다르게 시도하고 있다. 〈자음과모음·2만3000원〉



▲고독한 시월의 밤=대작 판타지 ‘엘버 연대기’ 등을 쓴 미국 SF 작가 로저 켈라즈니의 마지막 소설. 연쇄살인자 ‘잭 더 리퍼’, 드라클라, 프랑켄슈타인, 셜록 홈스, 늑대인간 등의 고전 영화와 문학에서 빌려 온 캐릭터들을 대거 등장시켜, 탐정물과 판타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으로 완성했다. 〈시공사·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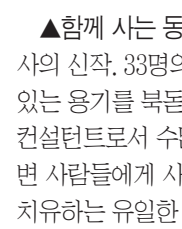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2009년부터 조선일보를 통해 연재되었던 문인들과 각계 인사들의 에세이 중 40편을 엮었다. 박완서, 이해인, 정호승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열다섯 명 문인들과 기업인, 사회운동가, 스포츠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스물다섯 명 유명인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가족과 친구가 그리울 때, 나의 일상과 삶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 꺼내어 들춰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들이다. 〈21세기북스·1만3000원〉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인구 고령화는 더 이상 노후 대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조지 매그너스가 인구 고령화가 경제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령화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알아본다. 고령 인구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저축 감소, 연금과 의료비 같은 고령화 관련 지출로 인한 정부의 공공지출 증가 등 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문제를 살펴본다. 〈부기·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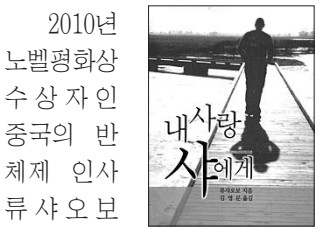


▲한국의 사랑채=유일히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선임연구원이 조선시대 ‘주거문화의 꽃’인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을 조명한 연구서이다. 부부유별, 장유유서 등 유교 규범에 따라 주거 공간을 엄격히 분리했던 조선시대 사랑채는 주택 내 상이한 영역을 분리시키면서도 동시에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 공간이었다. 〈산지니·2만5000원〉



▲함께 사는 동안에=‘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 게리 채프먼 목사의 신작. 33명의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준다. 인간관계 전문상담가이자 결혼·가족생활 컨설턴트로서 수많은 부부들과 사람들을 상대해온 저자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만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담·1만2000원〉

노벨평화상 류샤오보 사랑의 시 선집 출간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의 시선집 ‘내 사랑 시에게’가 번역,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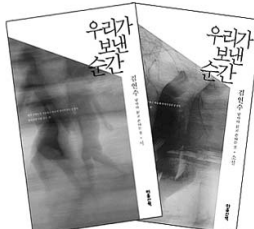
류샤오보와 그의 아내 류사(劉霞)의 시를 함께 실어 2000년 홍콩에서 출간된 ‘류샤오보 류샤 시선’ 중 류샤오보의 시만 골라 번역한 것이다.

류샤오보가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 71수를 비롯해 1989년 6·4민주화운동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들을 위로하는 추모시 14수까지 총 85수로 구성됐다. 이밖에 류샤오보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인 ‘08헌장’, ‘나는 적이 없다-나의 최후 진술’, ‘나의 무죄 변론’ 등의 자료도 수록됐다.

〈글누리·1만2000원〉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우리가 보낸 순간...

김연수 지음



최근 2~3년간 소설가 김연수만큼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친 이도 드물다. 장편소설 ‘밤은 노래한다’, 단편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를 내놓았고, ‘절친’ 소설가 김중혁과 영화에세이 ‘대척 없이 헤피엔딩’도 펴냈다.

지난 연말에는 자신의 대표작 ‘7번국도’의 배대만을 남겨두고 새롭게 쓴 ‘7번국도 Revisited’ 등 세권의 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2권으로 구성된 ‘우리가 보낸 순간-날마다 읽고 쓴다는 것’은 그가 읽었던 시와 소설의 ‘어느 대목’

을 들려주는 책이다. 일찍이, 작가가 되기전까지 가슴에 새겼던 문장을 자신의 독서 체험과 함께 써 내려간 ‘청춘의 문장들’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터라 이번에도 나오 책도 기대를 충족시킨다.

49편의 소설을 소개하는 책은 한국문화에술위원회의 ‘문학집배원 김연수의 문장 배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엮은 것이다. 2~3페이지 정도의 소설문장을 싣고 한페이지 분량의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 소설은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다. 신작과 고전과 국내와 국외 작가 작품을 아우른다.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연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김훈의 ‘남한산성’, 성석제의 ‘지금 행복해’, 이승우의 ‘그곳

가슴에 새겼던 시·소설의 문장들 다시 들려주다

이 어디든’ 등이다.

99편의 시를 소개하는 또 다른 책은 일간지에 연재했던 ‘김연수의 시로 여는 아침’을 정리한 것이다. 소설가라는 직함을 달기 전 ‘시’로 먼저 등단한 그가 뽑은 시들은 시를 좀체 읽지 않는 요즘의 독자들에게 반가운 선물이다. 이대훈·허수경·고형렬·이시영·이정록·김신우·김승희·신현림·최승자 등의 시가 모여 있어 근사한 ‘종합선물세트’를 이루었다. 각각의 시에 걸맞은 그의 이야기 역시 풀이 쓴 시처럼 읽힌다.

그가 권하는 소설과 시들~ 행어 책 읽기를 올해 계획으로 잡아 놓은 사람이라면 근사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산책·1만원, 90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를 착용하면 매우 잘 들립니다.
국제보청기는 착용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보청기의 가격은 저렴하여 고객님의 만족을 드립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남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

국제보청기
www.kjhr.com

since 1982